**사랑하는 보내는 선교사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봄과 함께 이곳으로 와서 시작한 생활은 해마다 재계약 기간이 가까우면 이사를 생각하면서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한 달 정도 새롭게 이사하고 싶은 지역의 거의 모든 부동산과 월세 광고가 붙어있는 집과 인터넷 광고를 보았습니다. 여러 해 기도편지에도 몇 번이나 이사 기도 제목을 나누었지만 재정의 부담과 이사의 어려움 등 여러 사정으로 번번히 주저앉기를 4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적었음을 고백하며 불확실한 장래를 주님께 맡기며 주인에게 5월에 이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되는 몇몇 동역자님들께 기도 부탁을 드리면서 편지를 쓰면서 새로운 처소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결정이 되도록 확실하게(안전한 환경과 좋은 주인,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재정과 계약, 이사의 모든 절차를 위해) 기도제목으로 나눕니다.

5월에는 토요일마다 전통 장 담그기(된장, 젓갈, 간장, 고추장) 한식 수업을 시작합니다. 둘째주에는 2주 동안 한국에서 저명한 한식전문가들이 와서 오전에는 3명의 문화원 한식선생님들이 이론과 실기를 배우고, 오후에는 G 대학교의 조리관련 학과 교수들에게 이론과 실습 강의를 하는데 저는 이 기간동안 학생들에게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지경을 넓히고자 인도하시는 주님의 계획이기를 기도하는데 동역자님들께서도 복음 전파와 영혼들을 제자 삶는 일에 쓰임 받는 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U 간호사 아줌마는 많은 환자(낙태)로, H 부인은 큰 딸의 첫 외손자와 수영 선수 셋째 딸 뒷바라지로, N은 6월의 결혼 준비로 바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성경을 궁금해하는 G와 A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고 시간을 맞춰서 함께 읽자고 했습니다. 한식과 한복모임을 통해 복음으로 교제하는 그룹들이 생기도록 주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에 국제교회에서 오전 9시 예배에 참석하고 협력하기로 했는데, 주일에 현지인들과 만나는 약속들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와 자연스러운 연결을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세계의 불안한 전쟁과 테러 등의 정세와 한국이나 이곳의 상황들이 기도할 제목인데, 잠이 많은 제가 새벽에 깨는 것은 기도제목이 많아서인지 갱년기를 겪고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주님과 교제하는 첫 시간이 좋습니다.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울면서 왔는데, 저는 이곳 생활에…… 푸른 오월은 어린이, 어버이, 스승 등 여러 행사가 많은 아름다운 계절에 사랑과 감사의 인사를 지면으로 대신하며 동역자님들도 강건하게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 그리고 5월27일부터 금식 기간이 시작되는데, 땅끝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김에스더 드립니다.

**“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 후서 4장1~2절)**